

현장 중심 디지털 교육 선도

전북교육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학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학운위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에듀테크 전문교사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도내 모든 학교의 학습지원 SW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활용하는 207개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지원단 자체 검증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배포해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어별 자체 검증 목록을 제공해 학교가 손쉽게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챗봇도 개발해 궁금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서식 등 맞춤형 행정 자료도 함께 제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전북교육청은 챗봇과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도내 모든 학교가 차질 없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현장지원단 구성을 통한 전수조사부터 자체 검증 절차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 검증 목록·챗봇 개발 오픈라인 설명회까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학교의 업무 경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Co-breathe, So-bright: RISE 성과공유·미래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은 류두현 전주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함께 호흡·함께 설계’ RISE 모델 제시

전주대, RISE사업 성과공유·미래협력포럼 성황리 마쳐 트랙별 성과 보고·피지컬기반 지역혁신 주제 토의

전주대학교 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Co-breathe, So-bright: RISE 성과공유·미래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지역 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RISE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1부에서는 전주대학교가 지역 혁신과 상생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의 노고를 인정하며 공로패 시상식을 진행했다. △남원시청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주대학교 총장상을, △안주안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무주군청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실군청 △

순창발효문화관광재단 △부안군청이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장상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산학 협력,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며 2025년도 1차 사업의 상생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이어 정동영 국회의원실 박승대 보좌관의 피지컬AI 혁명과 과학기술 전북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RISE사업단 트랙별 성과보고 △2차년도 발전계획 발표 △우수기관·기업 유공자 시상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피지컬기반 지역혁신'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진행돼, 지역사회와 대학 간 공동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장에는 RISE 사업의 다양한 단과제 및 프로그램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와 피지컬 AI 기업 홍보관도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주대학교 류두현 총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과 함께 호흡(Co-breathe)하고, 더 밝은 미래(So-bright)를 함께 설계하는 RISE 모델을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연구·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학의 RISE 사업이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학교소멸, 협력·협치로 막아낼 것”

‘교육감 출마’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교육 경로 구축·농촌유학 활성화 등 방향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과 학교소멸은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관·학·기업 협력과 일관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치를 통해 위기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젊은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소멸은 곧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이제 전북은 생존 자체가 최대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북에서 살아야 하며 도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든 이들이 이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청 단독 대응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대학·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구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역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동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재정 투입을 통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협치해야 한다”며, 광역단위에서는 민·관·학·기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 개편, 교육과 취업 연계,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단위에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은 최근 학생들의 글로벌 공학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YU)에서 ‘글로벌공학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해외 명문대학 공학 현장서 역량 ‘UP’

전북대 공과대학, 싱가포르 난양공대서 ‘글로벌공학설계’ 운영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해외 명문대학 현장을 찾았다. 세계무대에서 세계의 공학도 및 석학들을 직접 만나 글로벌 시야와 실무 중심의 공학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전북대 공대는 최근 학생들의 글로벌 공학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YU)에서 ‘글로벌공학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대 공대생 10명과 과목 담당인 남창우 공대 부학장(유기소재첨성공학과 교수)이 함께 했다. 남 교수와 학생들은 2주간의 일정으로 난양공대 재료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수업에 참여하며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공학적 사고 역량을 함양했다.

또한 난양공대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협업 환경을 경험하고, 영어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의사소통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도 함께 키웠다.

특히 학생들은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Duncan Haldane 교수의 강연을 청강하며 세계적 석학의 연구 철학과 과학적 사고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옥스퍼드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진이 진행한 인공지능(AI) 관련 강연을 통해 공학 분야에서 AI 활용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성연 학생(유기소재첨성공학과)은 “해외 우수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공학도로서의 자부심을 느꼈고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남창우 교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학적 사고와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6개 권역 시험장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권역은 전주·완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 익산 4권역 정읍·고창·부안 5권역 남원·순창·임실, 6권역 진안·장수·무주로 나뉘며, 실제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장접수의 경우 초·중 및 장애 응시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으나, 중·고졸 및 고졸 응시자는 응시 희망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https://kged.gakr)’를 통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귀국가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창조노래 2층 접수처

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 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야 하며,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여권용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한다.

시험 장소는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 공고되며, 시험은 4월 4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응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6개 권역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응시자들이 불편함 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환경 조성과 안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동계체전 5년연속 상위권 입상 지원

전북교육청, 도내 학생선수 훈련비 25% 인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비를 25% 인상하는 등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5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하는 도내 46개 학교 학생선수 134명을 위해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3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선수들이 정비 관리와 현지 적응 훈련 등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인당 80만 원 수준이던

지원금을 25% 올린 것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25~28일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북 학생선수단은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전북의 메달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 선수 46명은 설원 위를 달리며 막바지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최근 전략 종목으로 급부상한 컬링 선수 29명은 정교한 팀워크를 다지며 메달 나

를 준비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바이애슬론과 컬링 등 특화 종목 선수들이 선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외 전지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원이 취약했던 아이스하키(19명)와 루지(10명) 등의 종목에서도 선수수가 두터워지며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제103회 대회부터 제106회 대회까지 4년 연속 종합 4위를 기록한 전북 학생선수단 올해도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5년 연속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